

외환 한눈에보는상상인지스전략

최예찬 | 경제/FX/원자재
02-3779-3519
yc.choi@sangsanginib.com



QR코드로 간편하게
상상인증권
투자전략팀 채널

미-일 외환시장 개입 이후 금융시장 영향 점검

미-일 공동 환시 개입에 달러/엔 급락

7/30 달러/엔 환율 163엔 레벨에서 일본의 환시 개입 움직임이 확인되었다. 이후 7/31 미 재무부가 뉴욕 연은행을 통해 유로 매도, 엔 매수로 동참하였고, 1998년 6월 이후 28년 만의 공동 엔 매수 공조가 나타났다. 8/3 가타야마 재무상과 베센트 재무장관이 공동개입을 공식 확인하였다. 이 여파로 달러엔 환율은 개입 이전 1986년 이후 최고치였던 164엔 근처에서 8/3 장중 155엔 수준까지 고점대비 약 5% 가량 하락하는 모습이다. 국내 외환당국도 7/30 일본과 발맞춰 달러/원 시장 개입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나, 일본과 같은 환율 급락은 제한되었다.

미 국채 금리 안정을 위한 공조, 엔 캐리 청산은 24년 대비 제한적 환경

4~5월 일본의 개입 규모는 11.7조엔으로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규모의 개입에도 한 달여 만에 환율이 전량 되돌려졌던 것과 달리, 이번 개입 시점에서는 3영업일째 낙폭이 확대되었다. 달러/엔 환율 하락 지속성의 근거는 공동 개입의 영향에 더해 금리차 대비 과대 절하되었던 달러/엔 환율의 되돌림이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달러/엔 환율의 급락에서는 엔 캐리 트레이드의 리스크가 부각되기 마련이다. 엔 캐리 트레이드 물량의 프록시 데이터인 엔화 순 숏 포지션은 개입 직전 기준 17.1만계약까지 축적된 상태다. 과거 엔 캐리 청산은 엔달러 환율이 고점 대비 -8% 이상 하락할때 가속됐고, 현재 장중 -5.0% 가량으로 임계치에 진입한 상황이다. 다만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유발할만 한 추가 이벤트는 제한적인 사항이기에, 24년 8월 블랙 먼데이와 같은 대규모 포지션 청산과 금융시장 충격을 유발할 가능성은 제한된다.

원화 절상은 수급측 요인이 주요. 일본과 같은 급락은 제한

원화는 경상 흑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하이닉스 나스닥 조달 약 265억 달러 환전과 7월 중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도세 진정 등으로 인해 국내 달러 수급 여건이 개선되었다. 여기에 엔화 절상으로 인한 동조화 현상으로 단기 환율 방향성은 하방 우위가 예상된다. 다만 일본과 같은 급절상 가능성은 제한된다. 한국의 외환보유고의 절대 수준은 높지만, 주가지수 급등으로 인한 외국인 보유 자금 증가로 적정 외환 보유고의 기준 역시 높아졌기 때문에 적극적 환시 개입에는 부담이 존재한다. 더불어 미 재무부 또한 이미 엔화를 매수하면서 소진된 ESF 여력 등을 고려하면 비G7 통화인 원화를 직접 매수할 정도로 원화 시장에 문제가 있지는 않다. 결론적으로 단기 달러/원 환율은 개입이 아닌 수급으로 안정될 전망이다. 다만 중장기 환율은 상품수지 흑자를 해외자산 축적으로 전환하는 기조가 지속, 1,500원 이상 전망을 유지한다.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마-일 정책 공조가 나타난 배경

올해 일본의 환시 개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60엔 터치 이후 엔화 가치 절하에 대응하기 위해 4/30부터 실 개입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며, 재무성이 발표한 4/28 ~ 5/27 기간 중 외환 시장 개입 규모는 11.7조엔으로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규모의 개입이었다. 개입 이후 급락한 달러/엔 환율은 재차 상승하여 164엔까지 레벨을 높인 상황에서 7/30 두번째 개입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다. 당사는 앞선 6월 BOJ Preview 보고서(6/12)에서 높은 미 국채 금리 레벨을 감안하면 미 재무부와 정책 공조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이번 개입은 미-일 정책 공조가 나타났으며, 목적 역시 당사 예상에 부합한 미 국채 금리 상방 압력 회피였다. 기본적으로 일본 재무성은 외환시장 개입에 필요한 달러를 외환보유액 내 미국채 매도를 통해 조달하기 마련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 재무부가 민감해하는 미 국채 장기물 금리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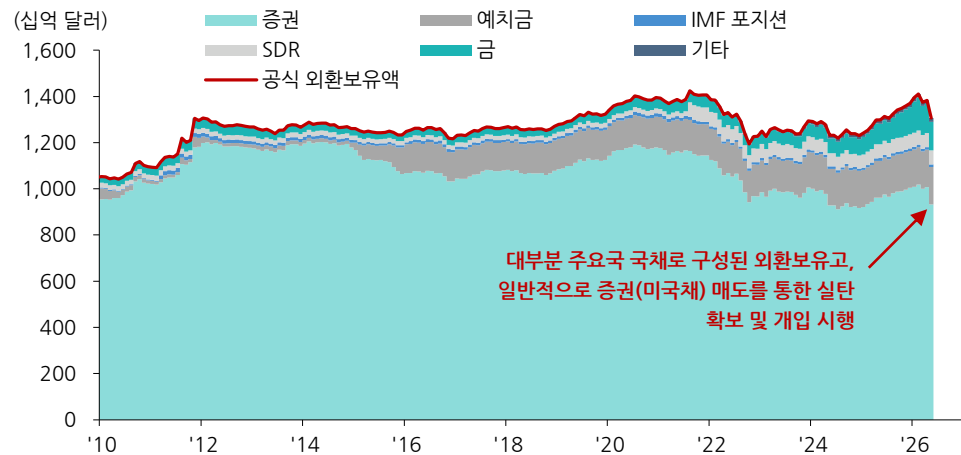
따라서 일본과 미국의 재무부는 미국채 시장 금리 상승을 제어하기 위해 두 가지 노력을 진행했다. ①일본은 FIMA 레포로 달러를 조달, 달러 매도/엔 매수 개입을 실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FIMA 레포는 외국 중앙은행이 미 국채를 담보로 연준에서 달러 현금을 차입하는 상설 창구다. 2020년 도입되었으며 상대 국가별 한도는 600억 달러다. 이를 활용함으로써 인해 미 국채를 매도하지 않고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②미 재무부 또한 달러가 아닌 유로 매도를 통해 엔화를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의 실탄은 외환 보유액 계좌에 예치된 유로 잔액 259억 달러 중 일부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외환 보유액 2,508억 달러 중 SDR과 금을 제외한 외화 증권 및 예금은 375억 달러 수준이며 유로 259억달러 + 엔 115억 달러로 구성되어 있다(7/24 기준). 여기서 유로화 자산 매도를 통한 엔화 매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매수 규모는 외신에서 보도된 베센트 재무 장관의 메모에서 유추했을 때 50~100억 달러 규모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개입으로 미 국채 시장 충격과 달러화 가치 훼손을 최소화하며 엔화 절하에 대응한 것이다.

그림 1. 일본은행 월별 환시 개입 규모와 달러/엔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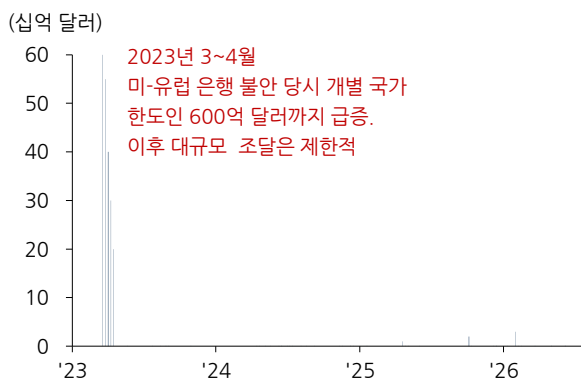
자료: 일본 재무성,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일본 외환보유고 잔액 및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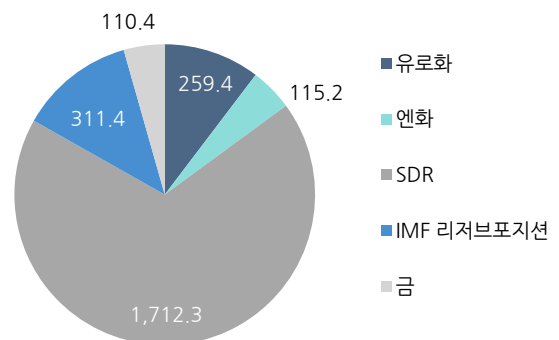
자료: 일본 재무성,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FIMA 레포 잔액. 일본의 경우는 사후 데이터로 유추 가능



자료: FRED,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미국 공식 외환보유액 구성, 유로화 자산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



(단위: 십억 달러)

자료: 미 재무부,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미 베센트 재무장관의 메모에서 확인된 일본 엔화 매입 금액(50~100억 달러)



자료: Reu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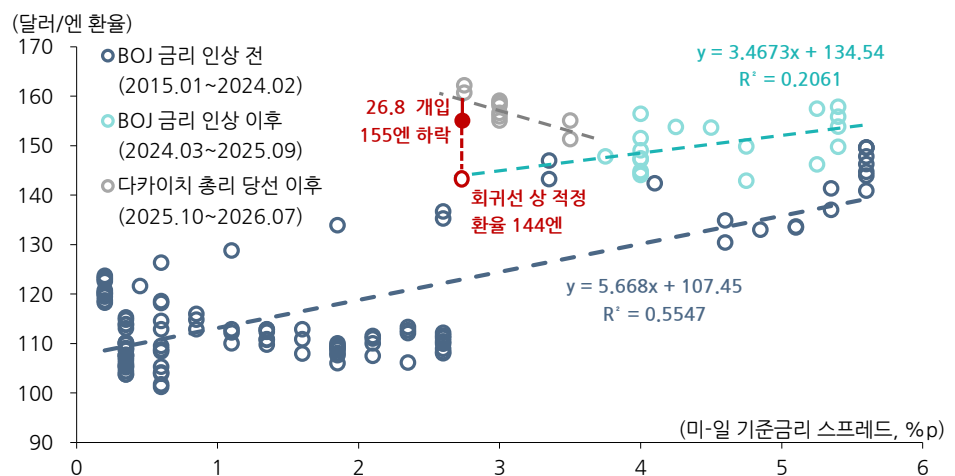
금리차를 반영한 적정 환율과 엔화의 저평가 원인 파악

달러엔 환율 변동의 55% 가량은 미-일 기준금리 격차로 설명 가능하다. 엔화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순대외채권국 통화이자 대표적 저금리 조달 통화이기에, 캐리 트레이드와 일본 기관의 환헤지 조절 플로우가 금리차에 반응해 움직이기 때문이다. '24년 3월부터는 시작된 BOJ의 금리 인상과,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맞물리면서 달러엔 환율은 절편은 올라갔으나, 여전히 기울기는 양수를 기록하며, 금리차 축소에 환율 하락으로 이어져왔다. 다만 2025년 10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당선 이후에는 금리차 축소에도 환율 하락이 아닌 상승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재정 리스크다. 21조엔 부양과 소비세 정지 등 재정확장정책이 통과되면서 일본 내 재정 관련 리스크가 부각되었다. 장기를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이 재정 리스크의 전형적인 영향으로, 이 경우에는 통화가치는 금리차 보다 재정 신뢰도를 우선시하게 된다. 더불어 기대 금리차는 오히려 재확대되었다. 환율에는 현재 정책금리에 더해 금리 경로에 대한 예상이 반영되기 마련인데, 최근 두 중앙은행의 스탠스는 상반되었다. 일본은행은 금리를 인상하면서도 비둘기파적 신호가 확인되었고, 미 연준은 금리 동결에도 매파적인 스탠스가 확인되며 연준의 기준금리 예상 경로는 오히려 높아졌다. 이러한 요인들이 누적되면서 엔화의 투기적 숏 포지션을 축적시키고, 엔달러 환율 급등을 야기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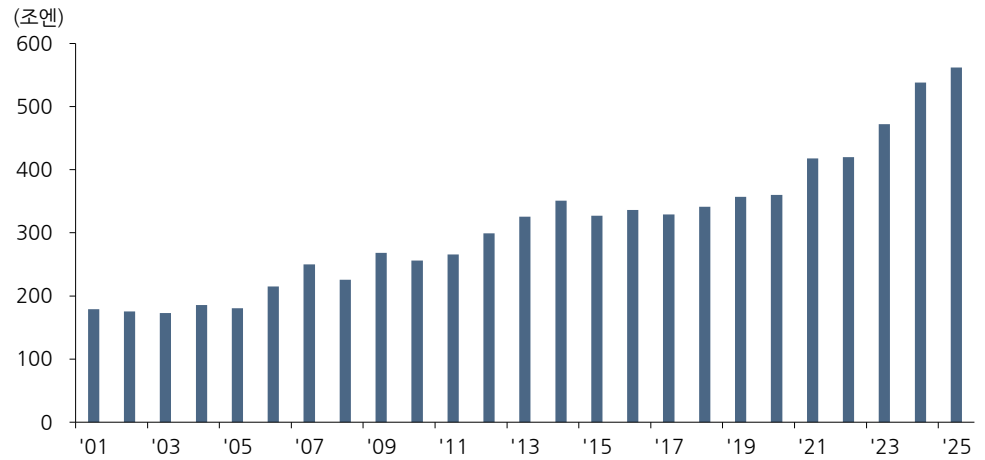
다만 이번 하락이 2.75%p의 미-일 기준금리 격차 내에서의 균형점까지 내려왔다고 볼 순 없다. BOJ의 금리인상기('24.03~'25.09)의 회귀선에 대입해 볼 경우 달러엔 환율의 적정 수준은 144엔 전후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여전히 개입 이후에도 10엔 이상의 재정 리스크 프리미엄이 작용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즉, 이 10엔의 격차까지 되돌려질 때 누적된 엔화 선물의 투기적 숏포지션 또한 정상화되면서 캐리트레이드 자금 역시 큰 폭으로 되돌려질 공산이 크다.

그림 6. 달러/엔 환율과 미-일 기준금리 스프레드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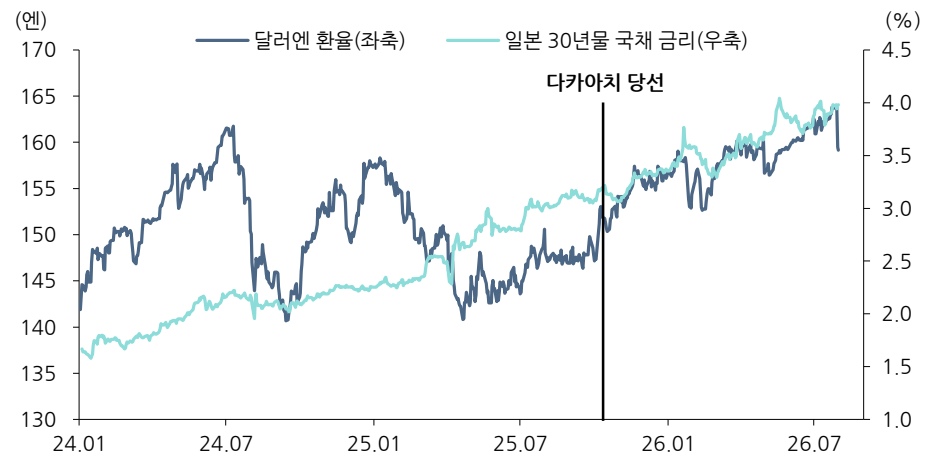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BOJ,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7. 일본의 순 대외 자산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일본 국채 30년물 금리와 달러/엔 환율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9. BOJ와 미 연준의 기준금리 및 선물시장 반영 금리 전망치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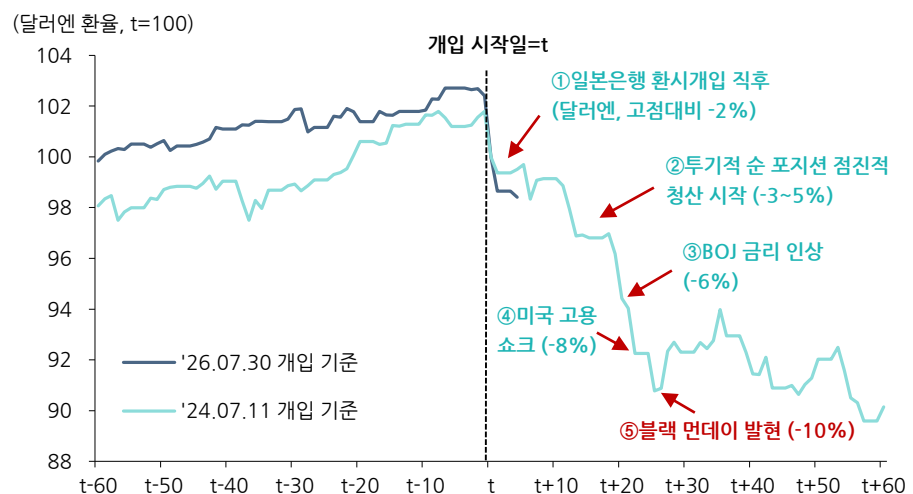
걱정되는 엔 캐리 트레이드, 과거 시점과의 비교

이번 공동 개입이 목표로 하는 것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누적된 투기적 엔 숏 포지션으로 추정된다. 개입 직전(7/28) CFTC 비상업 엔 선물 순 숏 포지션은 17.1만 계약으로 2024년 7월(19.0만 계약)의 90%까지 쌓였고, 헤지펀드(Leveraged fund)의 엔 숏 포지션을 명목 금액으로 환산하면 2007년 이후 최대인 약 95억 달러다. 문제는 이러한 엔 캐리 트레이드 포지션의 주력이 선물·스왑 등 파생상품이어서 국제수지 통계에 명확히 잡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더불어 엔화 강세 직후부터 이러한 파생상품의 포지션의 청산이 시작되긴 하나, 주식시장 급락 등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하여 영향의 시점과 정도를 예상하기 쉽지 않다.

주요 청산 국면에서 달러/엔은 고점 대비 ①1998년 8월 -26.0%(5개월), ②2007년 6월 -29.2%(19개월), ③2015년 6월 -20.3%(14개월), ④2024년 7월 -13.0%(2개월)를 기록했는데, 특히 구조가 유사한 2024년의 실측 경로가 유용하다. 당시 일본의 환시 개입(7/11~12)은 고점 대비 -2% 수준의 하락을 만들었지만, 투기적 숏 포지션의 청산은 개입 직후부터 곧바로 시작되어 2주간 환율이 -3~5%로 밀리는 동안 순숏이 19.0만 → 7.8만 계약으로 절반 이상 축소되었다. 이후 BOJ 금리 인상(7/31)과 미국 고용 쇼크(8/2)가 겹치며 연쇄청산이 나타났고, 8/5 블랙먼데일로 불리는 자산 가격 폭락으로 발현되었다. 주간 기준 최대 청산(6.6만 계약)이 바로 이 마지막 주에 나왔으며, 순포지션은 개입 4주 반 만에 넷롱으로 전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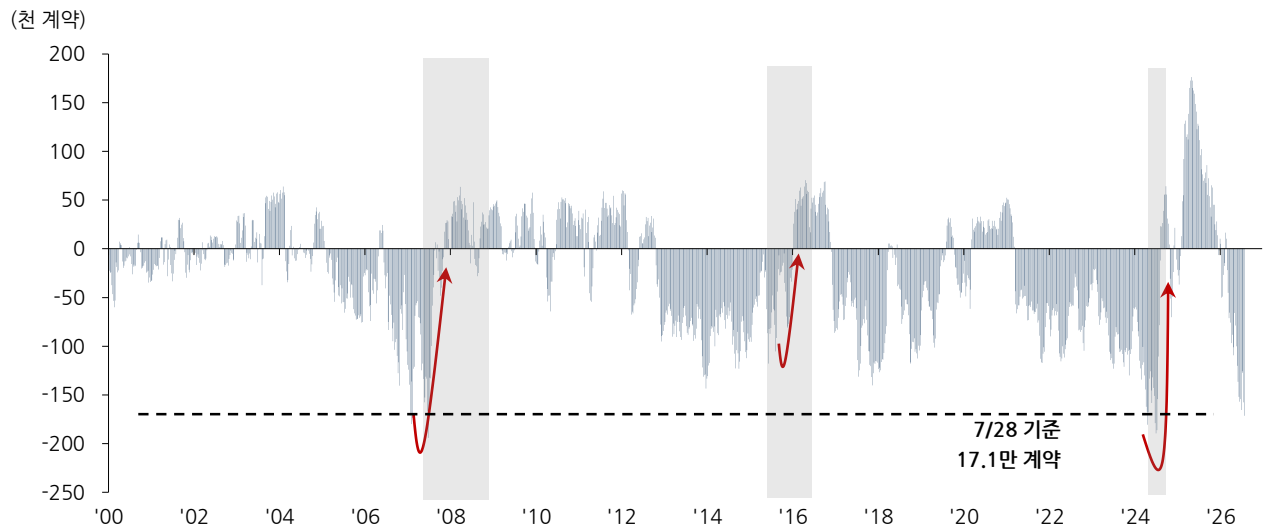
현재 달러/엔 환율은 고점인 163.9엔 부근 대비 장중 최대 -5.1% 하락을 기록하며 청산 가속 임계의 초입에 있다. 이 레벨의 경우 2024년과 비교할 때 순차적인 엔화 숏포지션의 되돌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제시한 금리차 대비 적정 환율 수준인 144엔 전후까지의 거리는 고점 대비 약 -12%로 공교롭게도 2024년 8/5 블랙먼데이 국면의 총 낙폭과 비슷한 경로다. 따라서 엔화 추가 강세가 지속될 경우 엔화 숏 포지션의 청산이 급증할 수 있다.

그림 10. '24년 7월 환시 개입 시점과 엔 캐리 청산 과정 및 26년 7월 개입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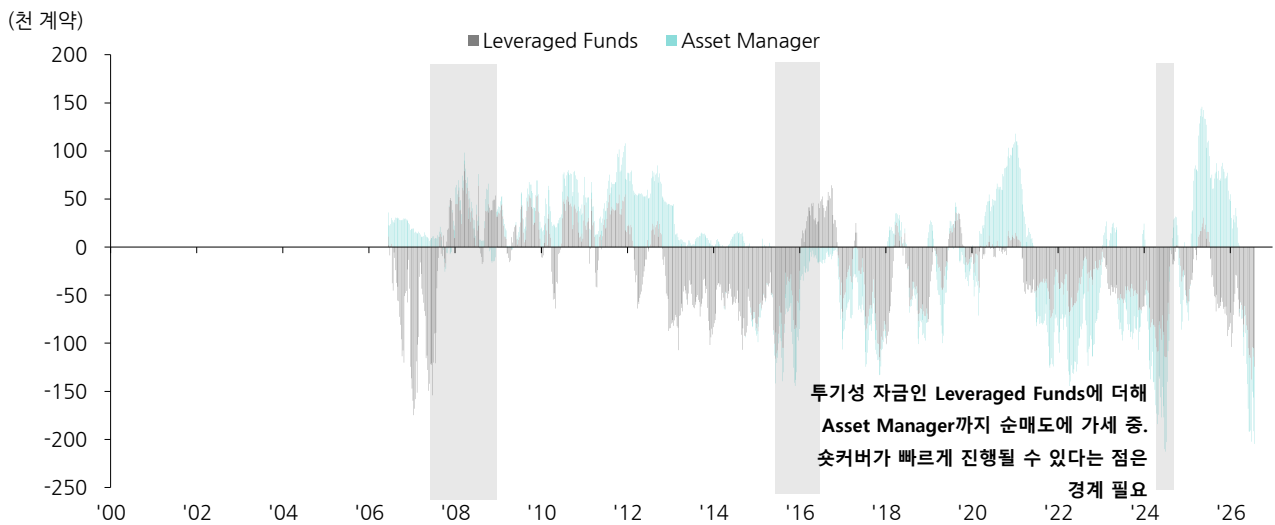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1. 엔화 투기적 순포지션(선물+옵션)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음영은 주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시점

그림 12. 엔화 투자주체별 순 포지션(Leveraged Funds & Asset Manag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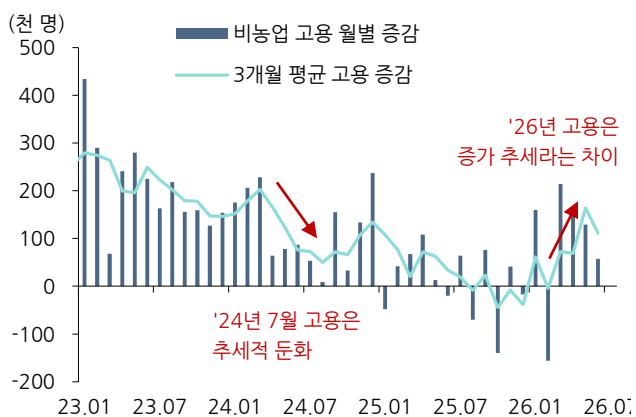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음영은 주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시점

엔화의 추가 강세는 제한되나, 금융시장 변동성 추가 요인

당사의 기본 시나리오는 2024년의 재현보다는 축소된 영향을 전망한다. 앞서 확인했듯 2024년 8월의 블랙먼데이를 야기한 청산은 환시 개입 단독의 결과가 아니라 개입(7/11)→BOJ 기습 인상(7/31)→미 고용 쇼크(8/2)로 이어진 트리거가 발현된 것이다. 현재 BOJ의 7/31 동결로 통화정책 이벤트를 이미 소화했고 차기 인상을 고려해도 6주 가량의 시차가 있으며 시장도 인상 가능성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어 시장 충격의 여지가 작다. 미국 역시 2024년 당시는 삼률을 자극한 고용 쇼크발 침체 공포 국면이었지만, 현재 미국 내 고용시장은 3개월 평균 고용이 11.1만명으로 고용 둔화와는 거리가 있다. 최악의 경우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더라도, 달러/엔 환율에 반영되는 재정 프리미엄은 지속될 공산이 크다. 이는 엔화의 추가 절상을 제한함과 동시에, 24년만큼의 금융시장 영향으로 전이되지 않을 가능성을 높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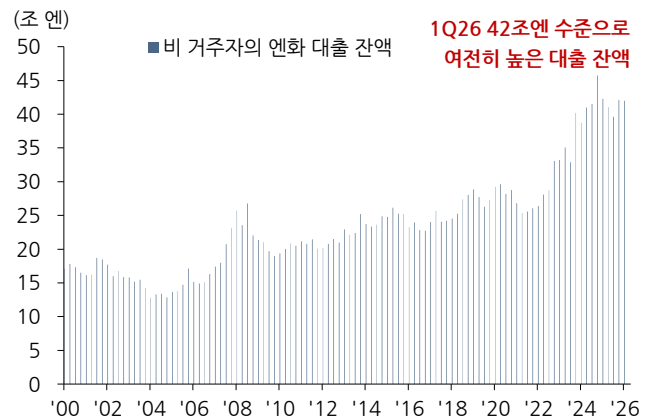
다만 엔화의 추가 절상 폭이 제한된다는 것이 곧 금융시장 충격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17.1만 계약까지 쌓인 투기적 엔 숏 포지션은 이제 청산 초입에 들어간 상황이다. 더불어 주요 엔 캐리 자금으로 평가되는 비거주자에 대한 글로벌 은행의 엔화 대출 잔액 역시 '26년 1Q 42.0조엔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더구나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밸류에이션과 쏠림이 극대화되며 위험자산 변동성이 확대된 국면이라는 부담도 존재한다. 즉, 같은 고용 쇼크라도 평상시보다 엔 캐리 청산 경로가 그 영향을 증폭하며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해당 영향은 역사적으로 시차가 존재하기에 결국 8/7(금) 발표되는 미국 고용지표와 엔화 포지션 변화의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해야 하겠다.

그림 13. 미국 비농업 고용



자료: BLS,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4. 분기별 비거주자의 엔화 대출 잔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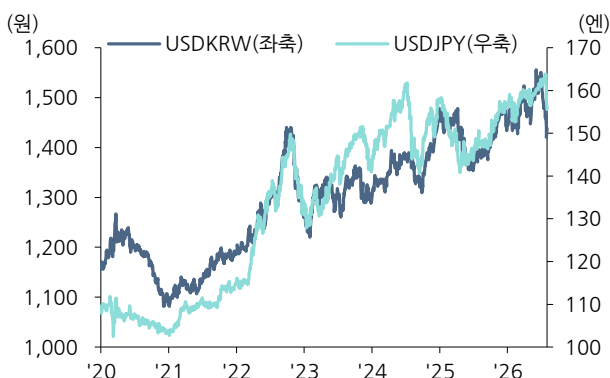
자료: BIS,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달러/원 환율 영향

원화는 구조적으로 엔화와의 동조성이 가장 높아진 통화다. 원-엔 60일 로그수익률의 이동 상관관계수는 올해 상반기 0.7 안팎까지 상승해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흥미로운 것은 직전 7월의 예외적 디커플링이다. 엔화가 164엔까지 밀리는 동안 원화는 오히려 절상되며 한 달간 환율은 -8.8% 기록했고 월간 상관관계수는 -0.6으로 반전됐다. 7월 중 글로벌 달러화 지수 변동은 중립적이었기에, 원화 자체 수급이 환율을 끌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요인으로는 국내 외환시장의 달러 수급 여건이 개선된 데에 있었다. 우선 국내 주식시장 가격 조정으로 외국인 순 매도세가 진정되면서 달러 이탈 추세가 진정되었다. 여기에 더해 SK하이닉스 나스닥 ADR의 분할 환전이 7월 하순부터 유입되며 환율 추가 낙폭을 키웠다. 이 가운데서 일본의 환시 개입이 있었던 7/30에 한국 외환 당국도 외환시장 미세조정이 진행되었다는 보도가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엔화와는 별개로 7월중 달러/원 환율이 고점 대비 9.3% 하락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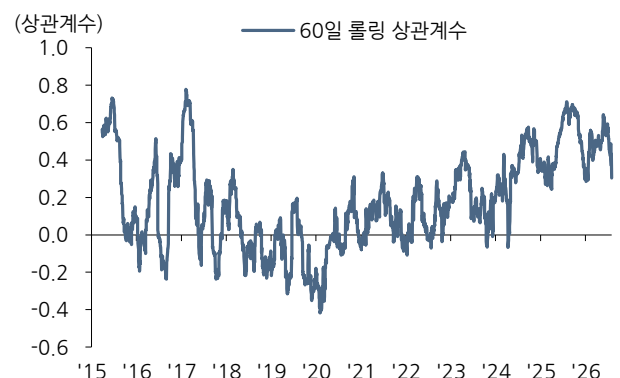
하반기에도 원화의 수급 안정화 요인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①WGBI: 4월 편입 개시 후 11월 완료까지 분기 단계 편입이 진행 중이며 4~6월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는 이미 38.5조 원에 달했다. ②265억 달러 규모의 하이닉스 잔여 환전이 9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③외국인 주식자금은 5월 -44.5조 원, 6월 -48.4조 원의 기록적 이탈(월간 역대 최대급 연속) 이후 7월 -9.9조 원으로 매도 강도가 크게 둔화됐고, 7/31에는 하루 +7.2조 원(일일 역대 최대) 순매수로 반전을 시도했다. ④내국인 해외투자는 미국주식 보관금액이 5월 사상 최대치인 2,143억 달러를 기록한 뒤, 7월 들어 1,809억 달러로 위축되었다. 다만 순매수 기조 자체는 유지되고 있어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위 수급측 요인들과 함께 미일 공조 개입을 통한 엔화와의 동반 강세 영향까지 고려하면 단기적인 환율 안정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림 15. 달러/엔 & 달러/원 환율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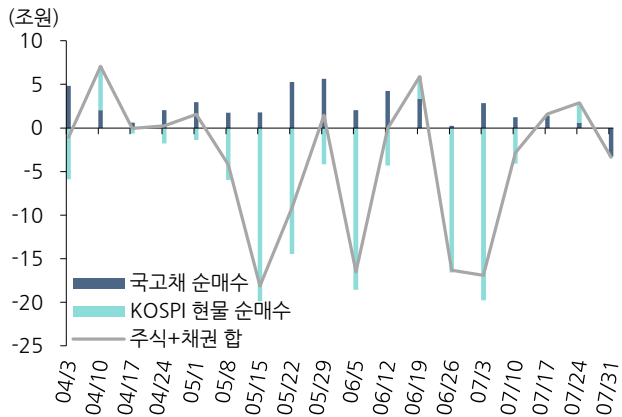
그림 16. 달러/엔 & 달러/원 환율 60일 이동상관관계수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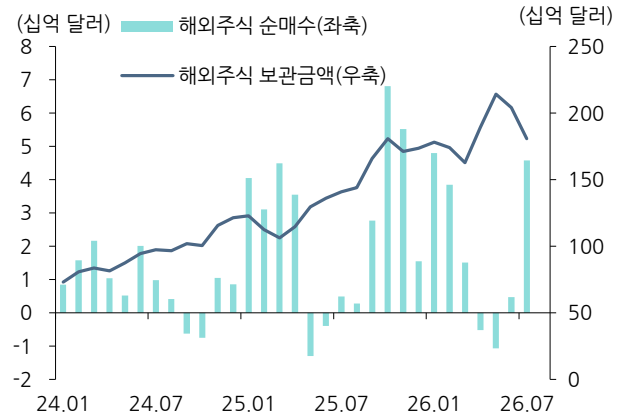
주: 60 영업일 Log 수익률 기준

그림 17. 주간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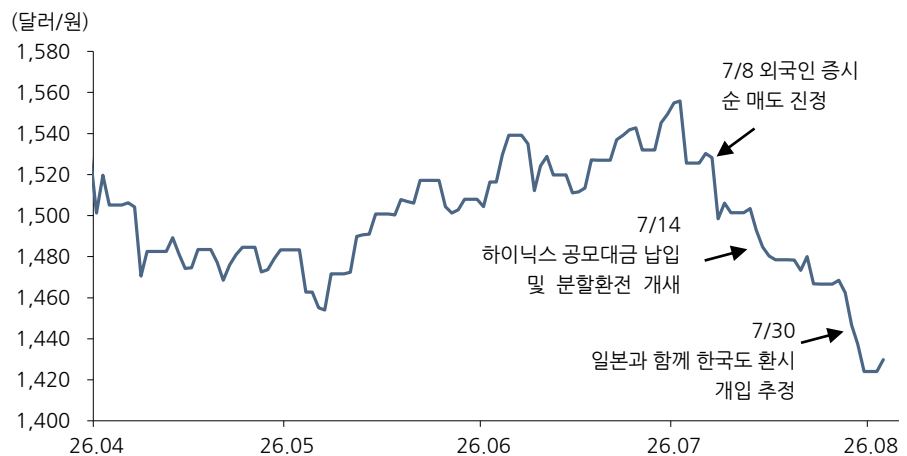
자료: Infomax,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8. 국내 투자자의 월별 해외주식 순매수 및 보관 금액 변화



자료: 예탁결제원,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9. 달러/원 환율과 수급 이벤트 발생 시점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단기 원화 환율은 수급 정상화 수준으로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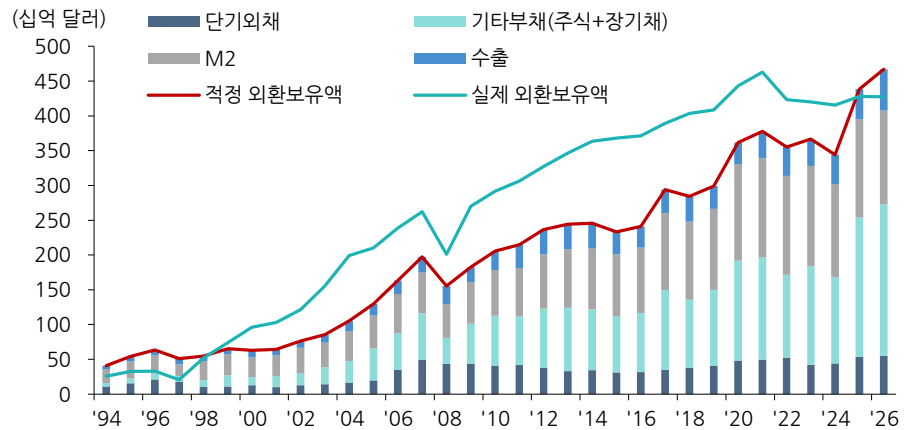
1400원 초반 레벨에서 원화도 일본 엔화처럼 추가 환율 하락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우선 실탄의 사정이 다르다. 당사가 「한국의 중장기 환율 전망 및 대외건전성 점검」 자료(7/29)에서 언급하였듯, IMF 적정외환보유액(ARA) 산식 기준 한국의 보유 비율은 2025년 97.6%로 1997년 이후 처음 100%를 밑돌았고, 2026년에는 91.5%까지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외환보유액 자체는 4,273.6억 달러로 높은 수준이나, 증시 랠리로 외국인 보유 주식의 평가액(지분증권 부채 9,100억 달러)이 불어나며 지표가 요구하는 필요 외화 기준선이 2년간 3,440억 달러에서 4,670억 달러로 높아졌다. 부채 기반 지표는 일관되게 양호해 외환위기의 신호로 읽을 수는 없으나, 보유액을 소진하는 적극적 방어에 부담이 커진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당국이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같은 보유하고 비소진형 수단을 사용해 온 배경이다. 외환보유액 1.2조 달러에 연준 FIMA 레포까지 동원하는 일본식 개입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며, 원화 개입은 변동성 완화 수준이 한계일 것으로 판단한다.

더불어 미국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다. 이미 원화는 7월 중 수급 요인들이 개선되면서 고점대비 100원 이상 하락한 상황이다. 미국이 G7 국가 통화를 매수한 사례는 1995년 멕시코 페소, 2025년 아르헨티나 페소가 있긴 하나, 두 사례 모두 위기국 구제 목적이었다. 연간 2,000억 달러대 경상흑자국인 한국은 해당 사항이 없고, 실탄 측면에서도 ESF 가용잔고 약 434억 달러 중 엔 개입에 공적 유로 보유분까지 동원되고 있어 여유가 많지 않다. 즉, 개입에 의한 추가 절상 가능성 보다는 단기 수급의 되돌림으로 인한 절상 전망이 유효하다.

다만 당사는 중장기 달러/원 환율은 현 수준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한다. 한국은 경상흑자가 만든 절상 압력을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가 그대로 상쇄하는 자본수출 구조에 들어서 있고, 순대외자산 축적이 통화 절하와 동행하는 미성숙 채권국 단계의 환율이 형성되는 과정이다. 대만의 2000년 이후 경로를 따르면 달러/원은 2030년까지 1,600원대 레벨이 예상되며, 자본수출이 지속되는 한 중장기 환율의 하단은 1,400원 부근으로 판단된다. 코로나 이후 높아진 가계의 저축-투자 차액과 비금융기업들의 해외자산 순 취득 전환. 정부의 대미 투자 패키지(연 200억 달러) 역시 이 구조의 일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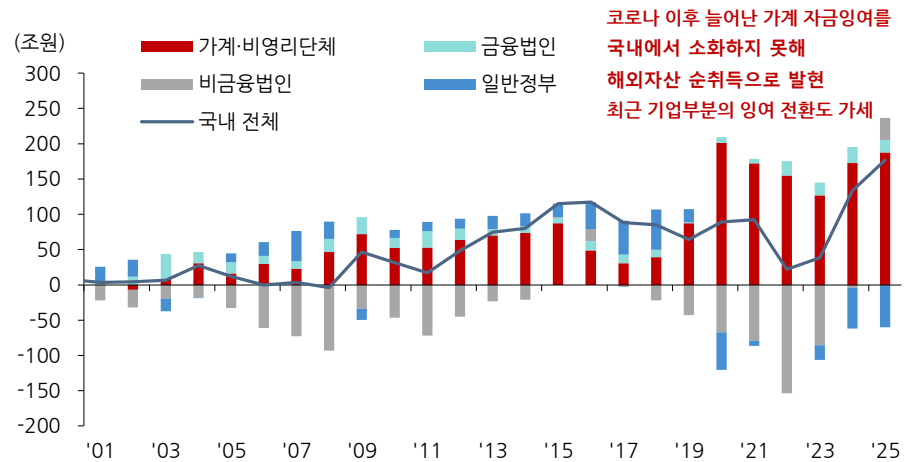
원화의 의미 있는 절상은 흑자의 크기가 아니라 재순환의 속도가 꺾일 때, 즉 자금이 국내로 돌아올 때 가능해지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경상흑자 유입 지속과 함께 WGBI 편입 & 하이닉스 환전 & 외국인 자금 복귀가 겹치며 절상 조건이 일시적으로 충족된다. 여기에 엔 절상 동조까지 감안해 3분기 1,300원 레벨을 단기적으로 트라이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하이닉스 환전(9월)과 WGBI 편입(11월)이 종료되는 4분기 이후에는 경상 흑자로 들어오는 달러의 재유출 구조가 다시금 부각되면서 환율은 1,500원대로의 복귀 압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림 20. IMF 적정외환보유액(ARA) 구성요소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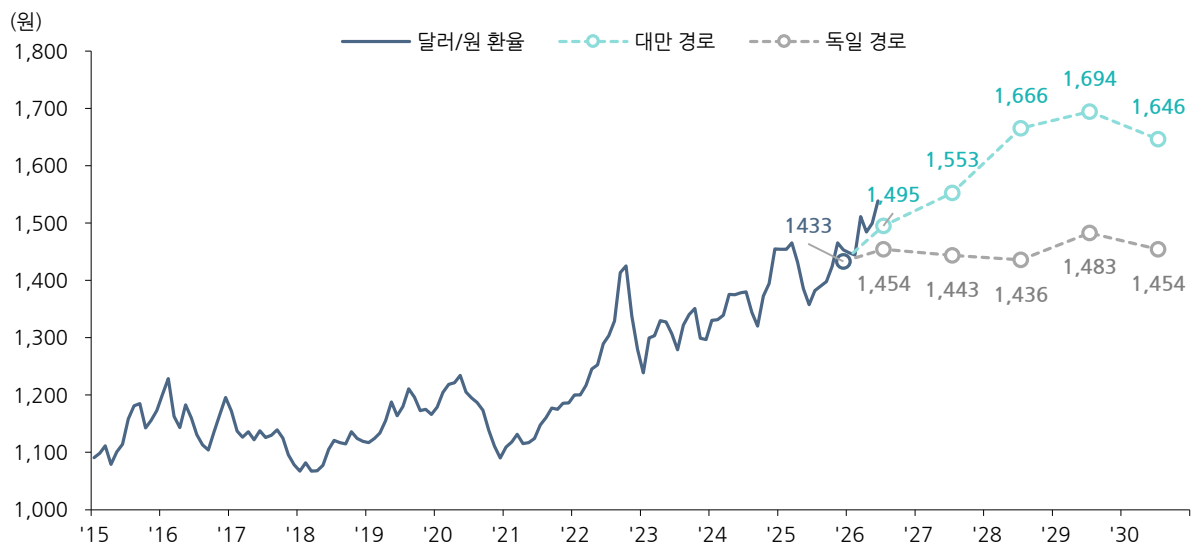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IMF,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주: 26년은 당사 전망치

그림 21. 국내 주체별 저축-투자 차액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2. 시나리오별 달러/원 환율 증장기 경로 전망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주: 국제수지 발전단계 사분면상 한국의 위치 유사한 대만('00년~)·독일('18년~)의 실질실효환율 경로를 한국 '25년(1,433원)에 이식(인플레이션 격차는 생략)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최예찬)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